

# 장성호 수변길 '치유 관광지' 인기몰이

### 지난달 중순 재개장...주말 평균 1만 명 방문 이어져

###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수변길마켓 오는 6일부터 운영

지난달 중순 재개장한 장성호 수변길에 '치유 관광지'로 인기다. 3일 군에 따르면 최근, 주말 평균 1만 명이 수변길을 찾고 있다. 장성호는 지난 1976년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조성된 인공 호수다. 웅장한 규모를 지녀 '내륙의 바다'로 불린다. 병풍처럼 에워싼 산자락과 드넓은 호수가 어우러진 풍경이 감탄을 자아낸다. 장성군은 2018년, 호수변에 나무데크길과 옐로우출렁다리를 설치해 '관광 핫플레이스'로 재탄생시키는 데 성공했다. 지난해에는 제2출렁다리인 황금빛출렁다리를 개통하고 호수 우측에 트래킹 코스인 '숲속길'을 만들었다. 또 수변길 방문객에게 입장 시 3000

원을 받고 동일 금액의 지역화폐(장성사랑상품권)를 지급하는 '수변길 상품권 교환제'를 실시해 관광 수요와 지역 상권을 효과적으로 연계했다. 아울러 '수변길마켓'을 확대 운영해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보에도 일조했다. 지난달 15일, 장성군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지침에 따라 한 동안 폐쇄됐던 장성호 수변길의 문을 다시 열었다. 마스크 착용과 5인 이상 단체이용 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많은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수변길을 찾은 박모 씨(광주 북구)는 "탁 트인 호수 풍경을 바라보면 답답했던 가슴까지도 시원해진다"면

서 "두 개의 출렁다리만 건너고 돌아와도 운동 효과가 좋다"고 전했다. 수변길 출발지점부터 첫 번째 출렁다리까지는 대략 1.2km, 두 번째 출렁다리는 1km 가량 떨어져 있다. 옐로우출렁다리와 황금빛출렁다리를 모두 체험하고 출발지점으로 돌아오는 데에는 넉넉잡아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옐로우출렁다리 인근에 편의시설인 납실정(카페, 분식점)과 출렁정(편의점)을 운영해 관광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오는 6일부터 새롭게 문을 여는 수변길마켓도 더욱 풍성하게 준비했다"고 밝혔다. 수변길마켓은 장성의 대표적인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정기적인 개장이 어려웠음에도 작년 6~12월까지 1억2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에는 지역 내 22개 농가 및 단체가 수변길마켓에 참여한다. 3월 6일 개장해 12월까지, 주말 및 공휴일마다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3일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수변길마켓 운영계획과 규정, 운영자 준비사항 등의 내용을 공유했다. 이어서 운영자들과 함께 수변길 주변 환경을 정비하며 개장을 준비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려는 관광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더욱 질 좋은 상품과 친절함 서비스를 갖춘 수변길마켓 개장으로, 지역 농업인의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룩하겠다"고 말했다. /장성=백종욱 기자

## 무안군 어린이보호구역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무안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와 차도 사이에 경계 녹지를 만들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 도로변 가로수 사이 공간에 딱죽을 조성하여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남악초등학교 주변 도로 약 500m를 정비하여 계절별 색채감 있는 관목과 초화류를 식재할 예정이며, 조성 과정에서 학교측과 학부모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공사는 학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름방학 기간 중 착공하여 기반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수목 식재는 활착을 감안해 9~10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그린숲 조성으로 어린이 안전 확보와 미세먼지 저감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개선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김상호 기자

## 순천 농산물 가공 창업 기초반 교육생 모집

순천시는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에서 가공제품 생산·판매확대를 위한 농산물가공창업기초반 9기 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분야별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농산물가공창업의 이해, 식품관련 법규, 농식품인증제도, 유통과 마케팅 방법을 배우는 기초과정으로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매주 2회(수·금요일) 진행된다.

교육 수요자는 심화 과정 교육신청 및 순천시농산물가공센터영농조합법인 가입 자격이 주어지며, 법인에 가입시 가공센터 장비사용은 물론 신제품 개발을 통한 창업까지 지원받게 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순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순천시에 거주하는 관내 농업인 및 시민이며,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또는 농지원부(해당자에 한함)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7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061-749-4680)·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접수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농업인 등 우선순위에 따라 25명 내외의 교육생을 확정할 예정이다. /순천=조준익 기자

##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

### 6월까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사 실시... 7월 승인 목표

여수시가 추진 중인 '2026 여수세계 섬 박람회'에 대한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가 펼쳐진다.

3일 여수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여수 섬 박람회를 2021년도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는 국가가 섬 박람회 개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국제 행사로의 가능성

을 타진하는 것으로 적지 않은 의미를 두고 있다고 여수시는 분석했다.

여수 섬 박람회의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 선정은 지난해 제출된 국제행사개최계획서에 대해서 행안부와 기재부의 내부 검토를 거쳐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했다. 여수시는 현안 과제인 섬 박람회 국제행사 승인에 전념하고, 전남도는

물론 도내 시군의 협력을 받아 대규모 국제행사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오는 8월 출범 예정인 '한국 섬진흥원'과 협력 프로그램을 발굴해 연계하고 출범 이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2026여수세계 섬 박람회 국제행사 승인 여부는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이후 오는 7월 중 기재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여수=최준열 기자

## '해남소통넷' 군민 참여 활발 인기 최고

### 하루평균 1300회 접속...내고장 정보·생활민원 서비스 등 제공

해남군은 전국 최초로 개발한 '해남소통넷'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해남소통넷은 현재 1만1936명이 가입해 있으며, 내 고장 정보를 비롯해 생활민원서비스, 각종 알림정보, 마을소식까지 스마트폰에서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

특히 지난해까지 하루 평균 470회 정도 접속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1300회 이상으로 접속량이 증가하는 등 군정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소통넷의 주요 내용은 ▲해남소

식·사업안내, 행사축제 ▲군정조직도에서 업무담당자 찾아 연결하기 ▲해남사랑상품권, 장난감도서관 이용 ▲자유계시판, 군민갤러리, 사랑의 기부, 칭찬합시다 ▲군민건강·군민안전·민원서비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소통넷은 해남군민은 물론 향우들도 이용이 가능하며, 설치 방법은 스마트폰 앱 스토어에서 소통넷을 검색, 앱을 다운받고 회원가입 후 사용할 수 있다.

병천관 군수는 "해남소통넷을 통해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책제언에 세심히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해남=김동주 기자



## '2021 NEXPO in 순천' 이벤트

### 오는 14일까지 네이버 블로그 통해 진행

순천시는 '2021 NEXPO in 순천'의 홍보 및 박람회 공식 SNS 채널(네이버 블로그) 활성화를 위하여 오는 14일까지 NEX FLEX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 삶을 스마트하게 만드는 선물 NEXPO가 쏜다!'라는 주제로 추진되는 이번 이벤트는 박람회 공식 SNS 채널 중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방법은 오는 14일까지 NEXPO에서 보고 싶거나 체험하고 싶은 기술을 박람회 포스터와 함께 개인 블로그에 포스팅하고 게시글에 참여완료 댓글을 남긴 후 개인정보동의 URL에 참여하면 된다.

시는 이벤트 참여자 중 심사를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여 당첨자 18명에게 준비된 3개 상품 중 선택한 상품을 발송할 예정이다.

시는 '2021 NEXPO in 순천' 공식 SNS 채널로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박람회 종료 시기인 오는 10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1차 이벤트(오픈이벤트)와 2차 이벤트(일정 변경 홍보 이벤트)를 진행했다.

한편, 오는 5월 5일 개최 예정이었던 '2021 NEXPO in 순천'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개최일정을 연기하여 오는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순천만 잡월드 일원에서 개최된다. /순천=조준익 기자

## 광양 도민과의 대화 참여자 모집

### 12일 오후 3시 비대면 온라인 방식 진행

광양시는 김영록 지사가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남 22개 시·군 중 광양시를 첫 번째로 방문해 2021년 도민과의 대화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도민과의 대화는 오는 12일 오후 3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On tac)으로 진행되며, 참여자는 각자의 장소에서 휴대폰, 노트북, PC를 통해 영상의회의 프로그램인 'ZOOM'에 접속해 대화에 참여하면 된다.

시청 회의실에 영상대화장을 마련하고 도지사, 광양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정(시정)보고, 코로나19 현황의 목소리 청취, 포스트잇 의견 수렴 및 참석자 질의응답 순으로 대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도정(道政)에 대한 시민 의견을 사전 수렴하기 위해 오는 9일까지 시 홈페이지(gwangyang.go.kr),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도정 정책 제안도지사에게 묻는다)을 접수받고, 이를 시민 건의사항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대화 참여자 180명(현장 30, 온라인 150)은 읍면동 인구수, 연령, 성별, 계층 등을 고려해 신청서 시 홈페이지 '오롯이 광양'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청되며, 영상대화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은 시 공식 유튜브 채널 '오롯이 광양'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도민과의 대화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광양=조준익 기자

##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보수교육비 지원

###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법정업무 직무·승급교육 지원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은 지역 내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법정 보수교육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직원은 3년마다 40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적 교육으로, 내용은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 예방과 방지, 감염병 예방 등이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 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으며, 2021년 내 실시된 일반직무교육 또는 승급교육을 이수한 약 1,500명의 보육교직원이다. /광양=조준익 기자

## 순천시의회 폐회 중 도건위 개최

### 연향동 송보파인빌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논의... 5일 임시회 개최

순천시의회가 제248회 임시회 폐회 중 도시건설위원회를 지난 2일 개최했다.

최근 순천시 연향동 송보파인빌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들 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순천시의회가 분양전환 관련 추진 상황 및 주요 민원사항을 보

고 받기 위해 폐회 중임에도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최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순천시 건축과로부터 분양전환 추진 상황 및 주요 민원사항 등을 보고 받은 후, 우선분양전환 적격자 선정 및 분양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향후 보완 대

책에 대해 논의했다.

김미연 도시건설위원장은 "내집 마련의 꿈을 안고 분양전환을 손꼽아 기다려온 시민들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며, "시에서는 갈등 해결의 중재 역할을 통해 빠른 시일 내로 민원이 완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관내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5일 제249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7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순천=조준익 기자

## 영암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활동비 지원

### 오는 8일부터 신청 가능... 관내 520개소 2억6000만원

영암군은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비대면 수요 급증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 및 홍보 지원을 위해 오는 8일부터 온라인 마케팅 활동비용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키워드 광고와 배너광고, 소셜마케팅, 온라인 쇼핑물, 증개플랫폼 등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로 지출된 비용의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온라인 마케팅 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구비서류 작성 및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용 지출 증

빙서류와 홍보 이미지 내용 등을 첨부하여 영암군청 투자경제과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8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신청서류 및 지원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공고란을 확인하거나 투자경제과 지역경제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영암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영암군 긴급지원 대책비 지원사업, 소상공인 이차보전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영암=김형두 기자